

실속 재테크

‘금테크’ 관심 고조

안전자산 선호... 금펀드 수익률 ‘반짝’

증시 상승기엔 기업 투자형·위축기엔 선물 유리

금통장·골드바 시세 변동·환차손 신중 접근 필요

최근 금가격이 연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금테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테크에 대해 투자가치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뉴욕상업거래소의 금선물 거래가격은 트로이 온스(31.1035g)당 1,602.4 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1,600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10영업일 연속 금가격이 상승한 것 또한 기록적인데, 1970년 9월 이래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에도 이런 추세는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표적인 ETF인 KODEX골드선물(H) 가격은 20일 종가기준 12,

150원으로 지난 연말 10,780원 대비 12.7%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금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7월 19일 순금 3.75g(한돈) 사자 시세는 22만원에 근접하였는데, 5월 초 21만원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5% 가까운 상승하고 있다. 금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투자자산(Safe heaven)의 대표주자이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실물자산이고, 장신구 등으로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귀금속이다. 따라서 최근 금가격 상승세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금관련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줄어들

다 하더라도 수요 증대(▲달러화 대체 수요 ▲ 아시아 신흥 강국들의 소비 ▲ 각국 중앙은행의 금보유량 증대)추세로 인한 금 가격 상승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금상품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하고 있다.

현재 금가격 상승뿐 아니라 자산 분산 차원에서 금관련 상품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금관련 상품은 ▲금펀드 ▲골드 ETF(상장지수펀드) ▲금통장 ▲금실물(골드바), ▲미니 금실물 ▲금가격과 연동된 DLS(파생결합증권)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금펀드는 금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와 금관련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로 나뉜다. 향후 금가격과 증시 모두 상승세를 유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금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순수하게 금가격 상승에만 베팅하고자 한다면 금관련 선물에 투자하

는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증시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금선물에 투자하는 펀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며 증시 상승기에는 금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금통장은 소액으로 언제든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수시에는 시세보다 높게, 매도시에는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골드바는 귀금속전문점과 시중은행에서 1kg, 100g, 10g 등 종류별 구매가 가능하다. 금 고시가격에 부가세 10%가 부가되어 거래된다. 금통장과 골드바는 국제 금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가격이 오르더라도 환율변동에 따라 경우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계우 유진투자증권 광주 부지점장) /정리=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현의 살림 레슨

■친환경 세계

집으로 오르는 계단 위 나뭇가지에 산비둘기가 동자를 틀었다.

제법 자라 털이 풍성한 새끼들이 머리를 빼죽 내밀고 있었다. 어미는 먹이를 구하러 나갔나 보다. 어린것들이 비 맞는 것이 싫었던 것일까? 잠시 기간 내내 어미는 새끼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연일 자리를 비운다. 바쁘고 부지런해졌다. 비 그치지 바빠진 것은 산비둘기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온 집안을 고슬고슬 말릴 대청소 계획을 세운다.

먼저 베이킹소다와 톱퉁한 식초 한 병을 사들였다. 이 둘은 바로 나의 친환경 세계인데 실제 사용해보면 효과가 상상 이상이다. 먼저 베이킹소다. 흔히 빵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능 외에도 연마 능력과 미생물 성장 억제 그리고 냄새를 흡수하고 독성을 중화하는 천연 중화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릇을 닦거나 소독하는데 그리고 냉장고나 싱크대 냄새 탈취 효과까지 탁월하다.

베이킹소다가 들어 온 날, 찬장에 있던 그릇들을 모두 따뜻한 물에 소다를 풀어 담았다. 도마 위에도 가루 솔솔 뿌리고 식초 조금 부었더니 부글부글 거품청소를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싹 씻어내고 나면 도마 살균청소 완성이다. 소독하기 힘든 아이들 플라스틱 물병도 소다 조금 넣고 물을 부어 흔들어 준다. 그뿐인가 수세미에 소다가루 조금 묻혀 그릇도 닦고 싱크대 주변도 닦는다. 모든 것이 반짝거린다. 따뜻한 물로 걸쭉하게 만든 소다 반죽은 목욕탕으로 가져갔다. 칫솔이나 수세미에 묻혀 욕실 벽을 닦았다. 곰

베이킹소다, 소독·탈취 효과 탁월 따뜻한 물에 풀어 닦으면 청소 끝



팡이 흔적이 사라진다. 이제는 쉬 다시 생기자도 앓을 것이다.

식초 역시 베이킹소다와 비슷한 면이 참 많다. 욕실과 나의 세탁실에는 세계 앞에 꼭 식초 한 병이 놓여 있다. 바로 머리와 섬유 린스 대용이다. 마지막 헹굼 물에 식초 조금 더해 보라. 섬유 유연제처럼 부드럽다. 원리만 알칼리성 세제 찌꺼기를 식초의 산 성분이 중화시켜 주기 때문인데 요즘처럼 잦은 샤워를 즐기는 때라면 한번쯤 식초로 린스사용을 줄여도 좋겠다. 내 머리카락을 위해 그리고 환경을 위해 말이다.

식초 탄 물을 창틀과 싱크대에 분무하는 것으로 청소를 모두 마쳤다. 임무를 마친 행주와 수세미는 소다

준 물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모아둔 빨래를 세탁기에 넣으면서 마찬가지로 세계 외에 소다 몇 스푼 더 넣었다. 표백과 살균에 도움이 되리라. 여기까지 읽고 나면 대단한 청소 해낸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없잖아. 그저 세계 대신 사용했을 뿐이고 삶이 소독할 일조차 식초와 소다 가루로 대체했으니 오히려 손쉽다. 한 여름 맹맹한 자락이 마루에 머무른다. 쓸모없는 것 같던 그 별도 고맙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마지막 소독법이다.

<‘달팽이의 열 두 달 살림법’ 저자 jazzchants@hanmail.net

미소 띤 ‘미소금융’

상반기 대출 8639건·1252억원

전년보다 각각 11%·57% 증가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위한 미소금융 대출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실적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 대출 실적은 8639건, 1251억8000만원으로 2010년 총대출 실적인 7770건, 795억6000만원에 비해 각각 11%, 57% 늘어났다.

현재 추세라면 하반기를 포함한 올해 총 실적은 약 2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2.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이상 연체율도 2.5%로 다른 서민대출기관보다 낮았다.

재단은 현재 전국 121개 지점을 올해 안에 1인 출장소를 포함해 15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각종 자영업단체, 상인회 등과 협조해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17개년 특화 상품을 연내 30개로 늘린다.

보해, 장성 경로당에 선품기 기증

보해가 노조총회 33주년 기념으로 모인 기금으로 선품기를 구입, 장성군내 경로당에 기증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현우)는 최근 장성군청 군수실에서 보해 정중태 전무, 황보욱 노조위원장, 김양수 장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내 경로당에 선품기 42대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 4월 7일 보해양조 노조총회 3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화환대신 받은 기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한편 보해양조 노동조합은 지난 2007년 장성군내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35포(700kg)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8~2010년까지 매년 장성군내 경로당에 선품기 40여대씩을 전달했다.



김형균 광주국제청장 북광주세무서 방문



김형균 광주국제청장이 20일 북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을 당부하고 있다.

김형균 광주지방국제청장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25일)을 맞아 20일 일선 신고 현장인 북광주세무서를 방문, 직원들에게 최신의 신고편의 제공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지역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신고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 한 후 관련 직원들에게 신고 편의 제공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신고기간 중 탄력적

근무체제를 운영해 휴일인 23, 24일에도 내방하는 납세자들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 발생 속소를 위해 전직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김 청장은 태풍 ‘메아리’ 및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마트한 에어컨 찾아요” 광주지역에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광주시 서구 이마트 광천점 가전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에어컨을 구경하고 있다. <이마트 광천점 제공>

Advertisement for Chilman brand waterproofing products, featuring 'SINCE 1988' and 'Chilman.co.kr'.

Advertisement for Namgol-dang (Namgol-dang) funeral services, featuring '극락전 남골당' and '무등산 문빈정사'.